

## 大日本バスケットボール協会の機関誌『籠球』

(1931年～1942年)に関する一考察

及川佑介 (東京女子体育大学)

キーワード：李想白、大日本体育協会、オリンピック・ベルリン大会

本研究では、大日本バスケットボール協会が設立（1930年）され、『籠球』（1931年～）の創刊に至るまでの経緯とその後を、李想白の視点を取り入れながら、バスケットボール史における『籠球』の位置付けについて検討した。

協会の設立と『籠球』の創刊の背景には、バスケットボールが遊戯的から競技的に移行したことや大日本体育協会からの独立などがある。若者らの情熱と行動が形になった大日本バスケットボール協会は決して多くの賛同を得られて設立した組織ではなかった。そうした状況の中で組織を統制すべく、その一端を担ったといえるのが『籠球』であった。

大日本バスケットボール協会の中心的人物であり、『籠球』では最も執筆回数が多かったのが李想白であった。当時の日本の競技団体の中で、朝鮮人が組織の中心にいたのは、バスケットボール競技のみであった。

大日本バスケットボール協会の『籠球』は、バスケットボールの情報を共有し、組織の統制を測るために発刊されたと考えられるが、そこには、最新のバスケットボールの情報が掲載され、『籠球』自体が人と人とを繋げ、さらに、競技力の向上や競技としてのバスケットボールの価値を高めていったと考えられる。

대일본 농구협회 관계지 『농구』  
(1931년~1942년)에 관한 고찰

오이카와 유스케 (도쿄여자체육대학)

키워드 : 이상백, 대일본 체육협회, 베를린 올림픽

본 연구에서는 대일본 농구협회가 설립 (1930년) 되고 『농구』 (1931년~)의 창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그 후를 이상백의 시점을 도입하여 농구 역사에서의 『농구』의 자리매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협회의 설립과 『농구』의 창간 배경에는 농구가 놀이에서 점차 경기의 성격으로 이행해 간 것, 그리고 대일본 체육협회로부터의 독립 등이 있다. 저자들의 열정과 행동이 보여지는 대일본 농구협회는 결코 많은 찬성과 동의를 얻어 설립된 조직은 아니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그 일부를 짊어졌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농구』였다.

대일본 농구협회의 중심적인 인물이자, 『농구』에서는 집필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이 이상백이었다. 당시 일본의 경기단체 중에서 제일 한국인이 조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농구경기뿐이었다.

대일본 농구협회의 『농구』는 농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의 통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간되었다고 생각되나, 거기에는 최신 농구 정보가 게재되어 『농구』 자체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경기력의 향상이나 경기로서의 농구의 가치를 높였다고 생각된다.

关于大日本篮球协会的机关杂志《笼球（篮球）》

（公元 1931 年～公元 1942 年）的一项考察

及川佑介（东京女子体育大学）

关键词：李想白，大日本体育协会、奥林匹克·柏林奥运会

本研究就大日本篮球协会设立（1930 年），《笼球》（1931 年～）创刊的经过及后续，从李想白的视角切入，探讨了《笼球》杂志在篮球史上的定位。

协会设立及《笼球》创刊的时代背景为，篮球从游戏类运动转变为竞技性运动，并从大日本体育协会中独立而出。在年轻人热情与行动中设立的大日本篮球协会，当初并没有得到太多的赞同与支持。在该严峻情况下，承担起部分统控组织重任的，可以认为就是《笼球》。而作为大日本篮球协会的中心人物，在《笼球》上执笔次数最多的，是李想白。在当时日本的竞技团体中，在日朝鲜人占据组织中心地位的，只有篮球竞技这一项。

大日本篮球协会的《笼球》杂志的发行，目的在于共享篮球信息、实现组织上的统控。而刊登有最新篮球信息的《笼球》本身，则成为了连接人与人的纽带，促进了人们篮球竞技能力提高的同时，提升了篮球作为竞技运动的价值。